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사회적 유능감이 가출충동에 미치는 영향

도금혜 김미성*

대구보건대학교 사회복지과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사회적 유능감이 가출충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D 지역의 중, 고등학교 남녀학생 475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자료 분석을 위해 빈도 백분율 및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고 t검증 및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자 청소년은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어머니에 대한 애착 모두 가출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 청소년은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어머니에 대한 애착의 하위변인 중 소외감이 가출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여자 청소년도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어머니에 대한 애착 모두 가출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 청소년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의 하위변인 중 소외감이, 어머니에 대한 애착의 하위변인 중 신뢰감, 의사소통 및 소외감이 가출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남자 청소년의 사회적 유능감은 가출 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 청소년은 사회적 유능감의 하위변인 중 대인적응성이 가출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넷째, 청소년의 가출충동은 남자 청소년의 경우 부에 대한 애착이, 여자 청소년의 경우 모에 대한 애착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아버지에 대한 애착, 어머니에 대한 애착, 사회적 유능감, 가출충동

청소년기에는 많은 변화와 갈등,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때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심리적 부적응이나 비행행동 등 문제행동을 보이기도 한다(송호창, 오윤자, 2006). 특히, 청소년 가출

은 청소년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 그 심각성이 높은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어(오승환, 2010), 청소년 가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교신저자 : 김미성, E-mail: miseong-kim@hanmail.net

최근 가출 청소년이 저지르는 범죄 행위들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데,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을 하기 위해 절도행위를 벌이기도 하고(YTN, 2012; 김용길, 2012, Kidd, 2007), 성폭행을 일삼고 성매매를 강요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9a). 또한 가출한 청소년들이 학교 폭력에도 심각하게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MBN, 2012; KBS, 2012), 가출 청소년들의 반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가출 청소년의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9b). 청소년 가출은 큰 사회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사회적, 가족적 대책이 시급하지만 아직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 가출을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함께 해결하기 위한 대처방안과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기이다.

가출 청소년의 문제점들이 밝혀지면서, 이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청소년 가출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몇몇 연구들이 실시되었다. 이들의 연구에서, 부모의 학대와 방임 및 부모와의 부정적인 경험이 청소년 가출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어(남미경, 2007; 남영옥, 2001; 박명숙, 2006; 오승환, 2010; 정혜경, 2000; 정혜경, 안옥희, 2001; Plass & Hotaling, 1995; Votta & Farrell, 2009; Zide & Cherry, 1992), 청소년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변인이 부모 변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 가출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은 많은 연구들에서 밝혀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연구들은 가정의 구조적 형태나 부모의 양육행동, 의사소통, 학대나 폭력에만 초점을 두어, 부모 자녀 관계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모와의 애착이 자녀의 가출행동에 어

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밝힌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부모와의 애착이 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요인들도 가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공격성, 불안, 우울 등이 높고,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가출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배문조, 전귀연, 2002; 오승환, 2010; 조학래, 2004; 한상철, 2000). 또한 친구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느낄수록 가출충동을 더 많이 느끼고 가출의 장기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박윤희, 이상균, 2010; 차명호, 양종국, 정경용, 2010). 이처럼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학교에서의 적응 능력이 청소년의 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지만,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과 친구관계를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개인적 특성인 사회적 유능감이 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힌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사회적 유능감이 가출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한편, 청소년 가출은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기존 연구들은 가출의 성차에 대해 서로 다른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백혜정, 2009; 보건복지가족부, 2008; 오승환, 2010; 허순희, 김순옥, 2010). 이에, 청소년 가출에 있어서 남학생과 여학생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좀 더 명확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에 대한 애착과 사회적 유능감이 가출충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부와 모에 대한 애착을 구별한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청소년의 성별과 부모의 성별을 동시에 고려한 분석을 해 보고자 한다. 또한 청소년 가출충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기존의 단편적이던 연구에서 벗어나 좀 더 심층적인 이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에 본 연구 목적을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부와 모에 대한 애착이 가출충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1-1. 남자청소년의 부와 모에 대한 애착이 가출충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1-2. 여자청소년의 부와 모에 대한 애착이 가출충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사회적 유능감이 가출충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2-1. 남자 청소년의 사회적 유능감이 가출충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2-2. 여자 청소년의 사회적 유능감이 가출충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사회적 능력이 가출충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3-1. 남자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사회적 능력이 가출충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3-2. 여자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사회적 능력이 가출충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청소년의 가출충동

청소년 가출이란 학자나 시대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지만, 보편적으로 청소년이 부모나 보호자의 허락 없이 집을 떠나 적절한 물리적·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로 인해 정신적 소외감과 신체적 고통, 지위의 상실 등을 겪고 있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주동범, 임성택, 2009; 한상철, 2008). 한편, 가출충동이란 가출행동을 유발하는 심리적인 충동을 의미하는데(남미경, 이경남, 2009), 가출충동은 가출의 가장 중요한 선행요인이기 때문에 가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청소년은 가출을 전후로 하여, 자연스럽게 비행 집단과 어울리게 되고 비행문화에 합류하게 되며 이성친구와 거리낌 없이 어울리면서 문란한 성관계를 갖기도 한다. 특히 가출이 장기화될 경우, 의식주 문제의 해결을 위해 비행을 저지르거나 각종 문제에 연루되면서 유해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김향초, 2009).

심지어 가출 청소년끼리 모여 숙식을 해결하는 ‘가출 패밀리’ 혹은 ‘가출 팸’이 생겨나면서, 가출 청소년들 중 남자 청소년들은 좀도둑 그리고 여자 청소년들은 성매매에 가담하면서 이들의 범죄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KBS, 2012). 나이 어린 청소년들은 경제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취업이나 합법적인 방법으로 근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생활비와 유흥비를 벌 목적으로 절도, 강도, 성매매 등 범죄를 일삼아 오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 가출에 대한 위험성과 심각성이 보고됨에 따라 청소년 가출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지만(정여진, 2012; 허순희, 김순옥, 2010), 청소년 가출의 증가와 가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가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 미흡한 편이어서(오승환, 2010), 이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기이다.

한편, 청소년 가출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가출충동은 여학

생이 더 높은 반면, 가출경험은 남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백혜정, 2009; 오승환, 2010). 그러나 위기 청소년의 경우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가출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상반된 결과가 보고되기도 하고(보건복지가족부, 2008), 가출충동에 대한 성차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허순희, 김순옥, 2010). 이처럼 청소년 가출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성차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해 좀 더 명확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하여, 청소년의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밝힘으로써 청소년 가출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규명해 보고자 한다.

부모에 대한 애착과 가출충동

애착이란 자녀가 부모에게 갖는 정서적 유대감으로(Bowlby, 1958), 청소년과 부모 간 관계의 기초는 애착에서 설명될 수 있다(이경님, 2002). 부모와의 애착관계는 자녀의 정서발달을 촉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윤명숙, 이재경, 2010; 윤명숙, 최정민, 2011, Bowlby, 1980), 스트레스 대처방안이나 심리적 적응, 정신건강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모지환, 김연화, 유재민, 2010; McCormick & Kennedy, 1994; Raja, McGee & Stanton, 1992), 부모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청소년들이 적대감을 적게 나타내고 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obak & Sceery, 1988). 또한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청소년의 비행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김효수, 김성천, 유서구, 2010; 송호창, 오윤자, 2006; 이경님, 2002; Mohammadiaryaa, Mirzaeib, Doustic, 2012), 청소년 비행 중 하나인 청소년

가출에도 부모와의 애착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가출 관련 연구들에서도 청소년 가출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으로 가족 요인을 보고하면서(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부모의 학대와 방임이 심할수록 청소년이 더 많이 가출하는 경향이 있고(오승환, 2010; 정혜경, 2000; 조윤주, 강란혜, 2010; Shane, 1991; Zide & Cherry, 1992),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할수록 가출을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정혜경, 안옥희, 2001; Martinez, 2006; Plass & Hotaling, 1995; Votta & Farrell, 2009). 또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가출에 영향을 주고(정혜경, 안옥희, 2001), 부모 자녀 간에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형성되어 있을수록 가출이 많이 일어난다고 보고하고 있어(김민정, 1999; 현은민, 2000),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모와의 애착이 자녀의 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애착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어머니와의 애착만을 살펴보았거나(박은민, 2010; 오미경, 안지영, 김지신, 2011; 이지인, 박성연, 2008), 어머니와 아버지의 애착을 분리하지 않고 연구를 실시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김효수, 김성천, 유서구, 2010; 윤명숙, 최정민, 2011). 그러나 어머니와의 애착과 아버지와의 애착은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분리하여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다(이희영, 최태진,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와 모의 애착을 분리하여,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애착이 가출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청소년 가출에 애착의 중요성을 밝히고자 한다.

사회적 유능감과 가출충동

방 법

사회적 유능감이란 부정적인 정서와 행동을 조절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정체감을 확립·유지하고 대인관계를 원활히 유지하며, 자신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성취하는 능력을 말한다(장혜주, 임지영, 2012). 즉 사회적 능력은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에서 잘 적응하는데 중요하게 요구되는 능력으로(O'Malley, 1977), 사회적으로 유능하지 못할 경우 다양한 측면에서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이희영, 최태진, 2007).

사회적 유능감은 적응적 기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심각한 정서 문제와 행동 문제를 예방하는데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Elliott, Malecki & Demaray, 2001; Garnezy, 1991). 이에, 청소년의 심각한 행동 및 적응 문제인 가출에도 사회적 유능감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가출 관련 연구들에서도 학교에서 잘 적응하지 못할 경우 청소년 가출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나타내고(차명호, 양종국, 정경용, 2010), 원만한 친구관계가 형성되지 못할 때 가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박윤희, 이상균, 2010), 청소년의 가장 핵심적인 사회 환경인 학교에서 유능하지 못할 때 가출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의 사회적 유능감이 가출 행동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보고되고 있지만 아직 까지 이에 대한 연구가 매우 드물어 이들의 관계가 밝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유능감이 가출에 미치는 영향을 밝힘으로써 그들의 관계를 명확히 규명해 보고자 한다.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D지역 중·고등학교 남녀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수집된 자료 500부 중 무응답 및 응답이 부실하게 기재된 25명의 자료를 뺀 475부의 자료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응답률은 95%이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측정도구

부모에 대한 애착 척도. 부모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Armsden과 Greenberg(1987)가 청소년기 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부모와 동료에 대한 애착 척도 개정판(Revised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R) 가운데 부모에 대한 애착 척도를 변안한 김미령(2005)의 척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변인	집 단	빈 도(%)
성 별	남	265(55.8)
	여	210(44.2)
학 교 유 형	중 학 교	233(49.1)
	고등학교	242(50.9)
월수입	100만 원 이하	32(6.7)
	101~200만 원	129(27.2)
	201~300만 원	123(25.9)
	301~300만 원	71(14.9)
	401만 원 이상	72(15.2)
	무 응 답	48(10.1)

도를 이용하였다. 김미령(2005)이 사용한 IPPA-R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에 대한 애착을 아버지와 어머니로 분리하여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부모와의 애착 척도는 25문항 4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뢰감(10문항), 의사소통(9문항), 소외감(6문항)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나누어진다.

‘신뢰감’은 부모님에 대한 믿음, 훌륭한 부모라고 지각하는지, 부모님이 나의 판단을 믿어 주는지, 부모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해해 주는지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의사소통’은 부모님이 의사소통 시 내 의견을 존중해 주는지, 부모님이 나의 걱정거리에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는지, 부모님과 고민을 함께 의논하는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소외감’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없으며, 부모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고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 좌절감, 침체감 등을 묻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애착이 될 수 있도록 부정적인 문항들은 역문항으로 처리하였다. 부에 대한 애착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신뢰감 .84, 의사소통 .86, 소외감 .72, 모에 대한 애착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신뢰감 .84, 의사소통 .86, 소외감 .73이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애착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데, 부모와 신뢰감이 잘 형성되어 있으며 의사소통이 원활하며 소외감이 적은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유능감 척도. 청소년들의 사회적 유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박금옥(1998)이 한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용한 사회적 유능감 척도를 이용하였다. 사회적 유능감 척도는 50문항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교성(10문항), 대인적응성(10문항), 사회참여도(10문항), 주도성(10문항), 인기도(10문항)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나누어진다.

‘사교성’은 사회적으로 더 유능한 행동을 나타내

며 친구를 쉽게 사귀는 것을 의미한다. ‘대인적응성’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협동적이고 친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참여도’는 친구와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놀이에 활발하게 참여함을 의미한다. ‘주도성’은 자신 있게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앞장서서 놀이를 주도하고 친구들에게 지시를 잘 하며 그러한 행동을 친구들이 잘 따르도록 이끄는 것을 의미한다. ‘인기도’는 재미있는 활동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것과 같은 집단의 목표들을 성취하는데 있어서 수단이 되는 능력이다. 사회적 유능감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사교성 .85, 대인적응성 .80, 사회참여도 .90, 주도성 .87, 인기도 .89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사회적 유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교성, 대인적응성, 사회참여도, 주도성 및 인기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가출충동 척도. 가출충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평소에 가출하고 싶은 충동을 얼마나 느끼는지에 대

표 2. 남녀별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사회적 유능감의 신뢰도

변인	하위변인	남	여	전체
부에 대한 애착	신뢰감	.84	.84	.84
	의사소통	.87	.83	.86
	소외감	.72	.70	.72
모에 대한 애착	신뢰감	.84	.84	.84
	의사소통	.82	.90	.86
	소외감	.70	.77	.73
사회적 유능감	사회성	.83	.87	.85
	대인적응성	.80	.81	.80
	사회참여성	.90	.91	.90
	주도성	.88	.87	.87
	인기도	.90	.90	.89

해 답하도록 하였다. 이에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1점, ‘아주 가끔씩 느낀다’는 2점, ‘어느 정도 느낀다’는 3점, ‘자주 느낀다’는 4점, ‘매우 자주 느낀다’는 5점으로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출충동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D지역 중·고등학생 500명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하였다. 각 반별로 담당교사가 질문지에 대해 설명한 후 학생들이 직접 질문지를 작성하였으며, 질문지를 작성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20분 정도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부실 기재 한 25부를 제외하고 475부를 자료처리하였다. 본 연구 자료의 통계처리를 위해 SPSS WIN Version 10.0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척도들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요인분석 및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애착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의 애착과 사회적 유능감이 가출충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중다 회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청소년의 부와 모에 대한 애착이 가출충동에 미치는 영향

남자 청소년의 부와 모에 대한 애착이 가출충동에 미치는 영향. 남자 청소년의 부에 대한 애착이 가출충동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단계1에서 남자 청소년의 부에 대한 애착의 하위변인 중 소외감($\beta = -.22$)이 가출충동에 영향을 미쳤다. 즉 아버지로 부터 소외감을 많이 느낄수록 남자 청소년의 가출충동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에 대한 애착이 남자 청소년의 가출충동을 설명하는 정도는 12%로 나타났다. 통제변인을 투입한 단계2에서도 역시 부에 대한 애착 중 소외감($\beta = -.23$)은 가출충동에 영향을 미쳤으나 통제변인은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 부에 대한 애착 중 소외감을 많이 느낄수록 가출

표 3. 남자 청소년의 부에 대한 애착이 가출충동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1단계			2단계		
	B	β	p	B	β	p
신뢰감	-.36	-.11	.12	-.36	-.12	.12
의사소통	-.15	-.08	.47	-.14	-.07	.52
소외감	-.40	-.22	.02	-.42	-.23	.02
학교유형				-.02	-.01	.83
월수입				.02	.04	.53
F		7.77*			12.89*	
R ²		.13			.13	
수정된 R ²		.12			.11	

표 4. 남자 청소년의 모에 대한 애착이 가출충동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1단계			2단계		
	B	β	p	B	β	p
신뢰감	-.11	-.03	.68	-.10	-.03	.70
의사소통	-.10	-.05	.62	-.11	-.05	.61
소외감	-.36	-.18	.04	-.36	-.18	.04
학교유형				-.02	-.01	.87
월수입				.01	.02	.72
F		4.71*			2.84*	
R ²		.05			.05	
수정된 R ²		.04			.03	

충동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통제변인 및 부에 대한 애착이 남자 청소년의 가출충동을 설명하는 정도는 11%로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의 모에 대한 애착이 가출충동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단계1에서 남자 청소년의 모에 대한 애착의 하위변인 중 소외감($\beta = -.18$)이 가출충동에 영향을 미쳤다. 즉 어머니로부터 소외감 많이 느낄수록 남자 청소년의 가출충동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모에 대한 애착이 남자 청소년의 가출충동을 설명하는 정도는 4%로 나타났다. 통제변인을 투입한 단계2에서도 역시 모에 대한 애착 중 소외감($\beta = -.18$)은 가출충동에 영향을 미쳤으나 통제변인은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 모에 대한 애착 중 소외감을 많이 느낄수록 가출충동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통제변인 및 모에 대한 애착이 남자 청소년의 가출충동을 설명하는 정도는 3%로 나타났다.

여자 청소년의 부와 모에 대한 애착이 가출충동에 미치는 영향. 여자 청소년의 부에 대한 애착이 가출충동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단계1에서 여자 청소년의 부에 대한 애착의 하위변인 중 소외감($\beta = -.20$)이 가출충동에 영향을 미쳤다. 즉 아버지에 게 소외감을 많이 느낄수록 여자 청소년의 가출충동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에 대한 애착이 여자 청소년의 가출충동을 설명하는 정도는 7%로 나타났다. 통제변인을 투입한 단계2에서도 역시 부에 대한 애착 중 소외감($\beta = -.21$)은 가출충동에 영향을 미쳤으며 통제변인 중 학교유형($\beta = .16$)이 유

표 5. 여자 청소년의 부에 대한 애착이 가출충동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1단계			2단계		
	B	β	p	B	β	p
신뢰감	-.08	-.03	.74	-.13	-.04	.61
의사소통	-.19	-.10	.35	-.17	-.09	.40
소외감	-.36	-.20	.03	-.37	-.21	.03
학교유형				-.34	-.16	.02
월수입				.02	.04	.52
F		6.32*			5.40*	
R ²		.08			.12	
수정된 R ²		.07			.10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 부에 대한 애착 중 소외감을 많이 느낄수록 그리고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일수록 가출충동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통제변인 및 부에 대한 애착이 여자 청소년의 가출충동을 설명하는 정도는 10%로 나타났다.

여자 청소년의 모에 대한 애착이 가출충동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단계1에서 여자 청소년의 모에 대한 애착의 하위변인 중 신뢰감($\beta = .23$), 의사소통($\beta = .36$) 및 소외감($\beta = .20$)이 가출충동에 영향을 미쳤다.

즉 어머니와의 신뢰감이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낮을수록, 소외감을 많이 느낄수록 여자 청소년의 가출충동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모에 대한 애착이 여자 청소년의 가출충동을 설명하는 정도는 16%로 나타났다. 통제변인을 투입한 단계2에서도 역시 모에 대한 애착 중 신뢰감($\beta = .23$), 의사소통($\beta = .33$) 및 소외감($\beta = .21$)이 가출충동에 영향을 미쳤으며 통제변인 중 학교유형($\beta = .16$)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자 청소년

표 6. 여자 청소년의 모에 대한 애착이 가출충동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1단계			2단계		
	B	β	p	B	β	p
신뢰감	.81	.23	.01	.79	.23	.01
의사소통	-.72	-.36	.00	-.66	-.33	.00
소외감	-.34	-.20	.04	-.37	-.21	.03
학교유형				-.32	-.16	.02
월수입				-.01	-.02	.72
F	14.76*			10.19*		
R ²	.18			.20		
수정된 R ²	.16			.18		

의 경우 모에 대한 애착 중 신뢰감이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낮을수록, 소외감을 많이 느낄수록 그리고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일수록 가출충동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통제변인 및 모에 대한 애착이 여자 청소년의 가출충동을 설명하는 정도는 18%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사회적 유능감이 가출충동에 미치는 영향

남자 청소년의 사회적 유능감이 가출충동에 미치는 영향. 남자 청소년의 사회적 유능감이 가출충동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단계1에서 남자 청소년의 사회적 유능감의 하위변인 중 대인적응성(β -.21)이 가출충동에 영향을 미쳤다. 즉 대인적응성이 낮을수록 남자 청소년의 가출충동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남자 청소년의 사회적 유능감이 가출충동을 설명하는 정도는 3%로 나타났다. 통제변인을 투입한 단계2에서도 역시 사회적 유능감의 하위변인 중 대인적응성(β -.21)이 가출충동에 영

표 7. 남자 청소년의 사회적 유능감이 가출충동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1단계			2단계		
	B	β	p	B	β	p
사회성	.00	.00	1.00	.00	.00	.99
대인적응성	-.35	-.21	.01	-.34	-.21	.01
사회참여성	-.16	-.13	.15	-.16	-.13	.16
주도성	-.05	-.03	.80	-.06	-.04	.79
인기도	.34	.24	.08	.34	.24	.08
학교유형				.02	.01	.87
월수입				.00	.01	.93
F	2.48*			1.76		
R ²	.05			.05		
수정된 R ²	.03			.02		

향을 미쳤다. 통제변인은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유능감의 하위변인 중 대인적응성이 낮을수록 가출충동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통제변인 및 사회적 유능감이 남자 청소년의 가출충동을 설명하는 정도는 2%로 나타났다.

여자 청소년의 사회적 유능감이 가출충동에 미치는 영향. 여자 청소년의 사회적 유능감이 가출충동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단계1 및 통제변인을 투입한 단계2에서 F값이 유의미하지 않아 여자 청소년의 경우 통제변인 및 사회적 유능감은 가출충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사회적 유능감이 가출충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남자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사회적 유능감이 가출충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남자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사회적 유능감이 가출충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유의했던 변인들을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적 유능감, 모에 대한 애착, 부에 대한 애착 순으로 설명력이 낮았던 변인부터 단계적으로 투입하였으며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적 유능감만을 투입한 1단계에서는 대인적응성($\beta=-.15$)이 남자 청소년의 가출충동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는 F값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단계에서는 사회적 유능감과 함께 모에 대한 애착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모에 대한 소외감($\beta=-.20$)은 남자 청소년의 가출충동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인적응성은 유의한 영향력이 사라졌고 설명력은 4%였다. 3단계에서는 사회적 유능감, 모에 대한 애착에 부에 대한 애착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부에 대한 소외감($\beta=-.29$)은 남자 청소년의 가출충동을 유의미하

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에 대한 소외감은 유의한 영향력이 사라졌고 설명력은 5% 증가하여 전체 변량의 11%를 설명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남자 청소년의 가출충동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력은 사회적 유능감이나 모에 대한 애착보다는 부에 대한 애착이 설명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사회적 유능감이 가출충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여자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사회적 유능감이 가출충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유의했던 변인들을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적 유능감은 유의미하지 않아 투입하지 않았고 부에 대한 애착, 모에 대한 애착 순으로 설명력이 낮았던 변인부터 단계적으로 투입하였으며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에 대한 애착만을 투입한 1단계에서는 부에 대한 소외감($\beta=-.28$)이 여자 청소년의 가출충동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10%였다. 2단계에서는 부에 대한 애착과 함께 모에 대한 애착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모에 대한 신뢰감($\beta=.24$)과 모와의 의사소통($\beta=-.35$)이 여자 청소년의 가출충동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에 대한 소외감은 유의한 영향력이 사라졌고 설명력은 9% 증가하여 전체 변량의 19%를 설명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여자 청소년의 경우 부모에 대한 애착을 함께 투입할 경우 부에 대한 애착보다는 모에 대한 애착이 상대적인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여자 청소년의 사회적 유능감이 가출충동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1단계			2단계		
	B	β	p	B	β	p
사회성	-.11	-.07	.48	-.14	-.09	.36
대인적응성	-.03	-.02	.85	.01	.00	.96
사회참여성	.11	.07	.44	.17	.12	.22
주도성	.36	.22	.12	.35	.22	.12
인기도	-.29	-.18	.22	-.34	-.20	.16
학교유형				-.42	-.20	.01
월수입				-.01	-.02	.81
F		.73			1.69	
R ²		.02			0.06	
수정된 R ²		-.01			.02	

표 9. 남자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사회적 유능감이 가출충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종속 변인	독립변인	1단계 (사회적 유능감)			2단계(모에 대한 애착)			3단계(부에 대한 애착)		
		<i>B</i>	β	<i>p</i>	<i>B</i>	β	<i>p</i>	<i>B</i>	β	<i>p</i>
가출 충동	대인적응성	-.24	-.15	.02	-.17	-.10	.10	-.12	-.07	.24
	모에 대한 소외감				-.41	-.20	.00	-.13	-.06	.37
	부에 대한 소외감							-.53	-.29	.00
통제 변인	학교유형	.04	.02	.78	-.03	-.02	.80	-.04	-.02	.76
	월 수 입	.00	.01	.90	.01	.02	.75	.02	.04	.49
	<i>F</i>		1.96			4.07*			7.23*	
	<i>R</i> ²		.02			.06			.12	
	수정된 <i>R</i> ²		.01			.04			.11	

표 10. 여자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사회적 유능감이 가출충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종속 변인	독립변인	1단계 (부에 대한 애착)			2단계 (모에 대한 애착)		
		<i>B</i>	β	<i>p</i>	<i>B</i>	β	<i>p</i>
가출 충동	부에 대한 소외감	-.51	-.28	.00	-.26	-.15	.06
	모에 대한 신뢰감				.83	.24	.00
	모와의 의사소통				-.71	-.35	.00
	모에 대한 소외감				-.21	-.12	.26
통제 변인	학교유형	-.34	-.16	.02	-.31	-.15	.02
	월 수 입	.02	.04	.52	.00	.00	.97
	<i>F</i>		8.45*			9.20*	
	<i>R</i> ²		.11			.21	
	수정된 <i>R</i> ²		.10			.19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에 대한 애착과 사회적 능력이 가출충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 회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기초하여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부와 모에 대한 애착은 가출충

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어머니에 대한 애착 모두 소외감이 가출충동에 영향을 미쳤다. 즉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소외감을 많이 느낄수록 남자 청소년의 가출충동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 아버지에 대한 애착에서는 소외감이, 어머니에 대한 애착에서는 신뢰감, 의사소통 및 소외감이 가출충동에 영향을 미쳤다. 즉 아버

지, 어머니로부터 소외감을 많이 느낄수록, 어머니와의 신뢰감이 높고 의사소통이 낮을수록 여자 청소년의 가출충동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방임할 때 자녀의 가출충동이 높아진다는 문재우(2012)의 연구결과와 부모와의 애착 결핍이 가출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밝힌 김동기와 홍세희(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부모와 대화가 원활하지 않을 때 받는 스트레스가 가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동범, 임성택(2009)의 연구결과와 부모와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비행성향이 낮다는 연구결과(김영혜, 1999)와 같은 맥락이다. 또한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형성에 실패한 청소년들은 대인관계의 적응성이 낮아지기 쉽고 비행의 발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김효수, 김성천, 유서구, 2010)와 부모와의 애착수준이 청소년기에 스트레스 대처에 어려움을 겪게 하고 일탈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송호창, 오윤자, 2006)도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이는 부모로부터 지지를 적게 받을수록 가출충동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점(오승환, 2010)에 근거하여, 부모로부터 소외감을 많이 느낄 때 가출 충동을 더 자주 느끼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이 청소년이 위험행동에 개입할 가능성을 크게 줄여준다는 점(Allen, Bell, & Boykin, 1994)에 근거하여,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고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부모로부터 지지를 받는다고 지각하게 되고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찾아 가출충동을 덜 느끼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여자 청소년의 경우 어머니에 대한 신뢰감이 높을수록 가출충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업성취에서 가족 특히 어머니의 지지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연구결과들(김의철, 박영신,

1998; 김의철, 박영신, 탁수연, 2002)에 근거하여, 부모의 관심이라는 것이 현대 경쟁적인 사회에서는 학업 성취를 위한 모습으로 고정관념화 되어 여자 청소년들에게는 일종의 스트레스로 작용하였을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감 영역을 훌륭한 어머니라고 지각하는지, 어머니가 나에게 얼마나 관심을 보이는지 등으로 질문하였는데, 이는 부모 관련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가출충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최선희, 2004)는 점에 비추어 여자 청소년에게는 때로는 이러한 어머니의 관심이 심리적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된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둘째, 남자 청소년의 사회적 유능감은 가출충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의 대인적응성이 가출충동에 영향을 미쳤다. 즉 대인적응성이 낮을수록 남자 청소년의 가출충동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잘 적응하지 못할 때 가출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차명호, 양종국, 정경용, 2010)와 일치하고, 친구의 지지가 적을수록 가출충동을 많이 느낀다는 연구결과(오승환, 2010)와 같은 맥락이다. 또한 친구애착을 높게 지각한 청소년들이 비행도 적게 한다고 밝힌 이경남(2002)의 연구결과와 친구의 지지가 청소년 비행성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김선미(2002)의 연구결과도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이는 청소년기에는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증가되면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청소년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김성중, 2000)에 근거하여, 청소년기에 친구와 잘 지내고 대인적응성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행동에 긍정적인 작용하여 가출과 같은 비행행동을 줄이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낮고 자신을 유능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청소년들이 비행을 많

이 지지른다는 점(Solomon & Serres, 1999)에 근거하여, 자신이 사회적으로 유능하지 못해 대인관계가 좋지 못하다고 느낄수록 가출과 같은 비행 행동에 충동을 느낀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사회적 능력이 가출충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남자 청소년의 경우 부에 대한 애착의 영향력이 가장 크고 모에 대한 애착, 사회적 유능감 순으로 상대적인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유능감만을 투입한 1단계에서는 대인적응성이 남자 청소년의 가출충동에 영향을 주었고, 사회적 유능감과 모에 대한 애착을 함께 투입한 2단계에서는 모에 대한 소외감만이 남자 청소년의 가출충동에 영향을 주었다. 사회적 유능감, 모에 대한 애착에 부에 대한 애착을 추가로 투입한 3단계에서는 부에 대한 소외감만이 남자 청소년의 가출충동에 영향을 주었다. 사회적 유능감에 모에 대한 애착을 추가로 투입했을 때 설명력이 증가하고 모에 대한 애착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점은 모에 대한 애착이 사회적 유능감보다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사회적 유능감, 모에 대한 애착에 부에 대한 애착을 추가로 투입했을 때 설명력이 가장 많이 증가하고 부에 대한 애착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점은 부에 대한 애착이 사회적 유능감, 모에 대한 애착보다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부에 대한 애착의 영향력이 가장 크고 모에 대한 애착, 사회적 유능감 순으로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남자 청소년의 가출충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여자 청소년의 경우 모에 대한 애착이 부에 대한 애착보다 상대적인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에 대한 애착만을 투입한 1단계에서는 부에 대한 소외감이 여자 청소년의 가출충동에 영

향을 주었고, 모에 대한 애착에 부에 대한 애착을 함께 투입한 2단계에서는 모에 대한 신뢰감과 모와의 의사소통이 여자 청소년의 가출충동에 영향을 주었다. 부에 대한 애착에 모에 대한 애착을 추가로 투입했을 때 설명력이 증가하고 모에 대한 애착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점은 모에 대한 애착이 부에 대한 애착보다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모에 대한 애착이 부에 대한 애착보다 상대적인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어머니와 관계가 여자 청소년의 가출충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 청소년의 가출충동에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여자 청소년의 가출충동에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밝힘으로써 동성의 부모가 자녀의 가출충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앞으로의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D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전국의 청소년에게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청소년까지 포함시킨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청소년으로 한정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최근 비행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연령을 좀 더 낮추어 아동까지 연구대상에 포함시킨 좀 더 포괄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가출충동만을 종속변인으로 포함시켰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가출충동뿐만 아니라 실제 가출행동까지 포함시켜 연구를 수행한다면 좀 더 의미 있는 연구가 되리라 기대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가출충동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인들의 설명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가출충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좀 더 다양한 변인들을 연구에 포함시켜 가출충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대해 좀 더 명확히 규명해 볼 것을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승희(2010). 중학생의 부·모애착, 우울, 심리적 안녕감,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중등교육연구*, 58(3), 1-29.
- 국가청소년위원회(2007). 2007년 청소년백서.
- 김동기, 홍세희(2007). 한국 청소년의 최초 가출 발생시점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에 대한 검증 : 비연속 시간 생존분석의 적용. *한국청소년 연구*, 18(3), 267-294.
- 김민정(1999). 여학생의 상습적인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령(2005). 청소년의 애착과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서울신학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미(2002). 가족의 의사소통과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 비행성향에 미치는 요인.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중(2000). 또래집단의 영향이 청소년들의 네트워크 컴퓨터 게임 이용과 충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희, 박성연(2009). 청소년의 성에 따른 부모의 양육행동, 청소년의 부모애착 및 또래애착,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5), 101-113.
- 김영혜(1999). 청소년 부모-자녀간의 애착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심리적 안녕감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용길(2012). 가출청소년 지원 및 청소년쉼터의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청소년정책방향정립을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 김의철, 박영신(1998). 한국인의 성공의식과 귀인양식: 토착심리학적 접근. *교육심리연구*, 12(2), 51-84.
- 김의철, 박영신, 탁수연(2002). IMF시대 이후 한국학생과 성인의 성공에 대한 의식: 토착심리학적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1), 103-139.
- 김향초(2009). 가출청소년의 이해와 상담. 학지사.
- 김현철, 김은정(2007). 변화하는 가족과 청소년기 사회화 과정: 국제비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효수, 김성천, 유서구(2010). 비공식낙인과 부모애착이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인과모형, 매개효과의 검증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2(4), 185-206.
- 남영옥(2001).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른 청소년의 성격특성이 가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45(5), 156-184.
- 남미경, 이경남(2009). 청소년의 가출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4), 41-54.
- 남미경(2007). 청소년의 가출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뉴시스(2012). 강남지역 연쇄 절도범 잡고보니 10대 청소년들. 2012. 2. 28.
- 문재우(2012). 우리나라 청소년의 가출충동과 가출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보건연구*,

- 38(1), 19-34.
- 모지환, 김연화, 유재민(2010). 청소년의 애착과 자기통제가 심리적인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연구*, 20, 37-62.
- 박금옥(1998). 청소년들의 자기조정 학습방략 정도와 학업성취 및 사회적 능력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명숙(2006). 청소년 가출의 잠재적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3(1), 85-106.
- 박은민(2010). 청소년의 교사애착, 또래애착, 모애착과 자존감 및 우울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3(3), 75-88.
- 박윤희, 이상균(2010). 청소년가출의 장기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리뷰*, 15, 157-186.
- 배문조, 진귀연(2002). 청소년의 가출행동과 관련된 특성 연구 : 개인, 가족, 학교환경, 또래관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0(1), 23-35.
- 백혜정(2009). 2009 한국 아동청소년 가출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보건복지가족부(2008). 2008년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부(2009a). 2008 청소년 성매매 단속 사례집.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09b). 아동청소년백서.
- 송호창, 오윤자(2006).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애착과 청소년의 비행.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1(2), 151-173.
- 연합뉴스(2011). '생활비 필요해' 가출청소년, 상습적으로 상가털어. 2011. 11. 4.
- 오미경, 안지영, 김지신(2011).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의 매개적 역할. *아동교육*, 20(3), 165-180.
- 오승환(2010). 청소년 가출에 대한 생태체계적 영향 요인, 가출충동과 가출경험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2(4), 301-324.
- 윤명숙, 이재경(2010). 부모애착이 초기 청소년 우울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 분석. *사회과학연구*, 26(2), 39-92.
- 윤명숙, 최정민(2011). 초기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안녕감 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3(2), 55-78.
- 이경님(2002). 청소년의 애착, 자아존중감 및 충동통제가 비행이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8), 191-206.
- 이지인, 박성연(2008). 어머니의 애착경험 및 심리적 통제행동과 어머니에 대한 청소년의 애착이 청소년의 심리적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3), 175-189.
- 이희영, 최태진(2007).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있어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의 역할. *초등교육연구*, 20(1), 23-41.
- 장혜주, 임지영(2012).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분노원인, 분노표현 유형과 사회적 유능감 및 정서지능 간의 관계 연구. *아동학회지*, 33(3), 23-43.
- 장휘숙(2011). 청년기의 가까운 사회적 관계와 부모 및 친구의 애착기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4(3), 19-34.
- 정여진(2012). 청소년의 가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혜경(2000). 청소년가출에 관한 예측모형. 중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혜경, 안옥희(2001). 청소년의 가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 *아동간호학회지*, 7(4), 483-493.
- 조윤주, 강란혜(2010). 부모의 학대 및 방임이 아동청소년 가출에 미치는 영향에서 비행친구의

-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7(8), 177-196.
- 조하래(2004). 가출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행정논집, 231, 172-198.
- 주동범, 임성택(2009). 청소년의 문제행동 경험이 가출경험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6(1), 51-72.
- 차명호, 양종국, 정경용(2010). 청소년 가출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분석. 소년보호연구, 15, 165-192.
- 최선희(2004). 청소년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가출충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일장신대학교 기독교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상철(2000). 가출청소년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우울과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11(2), 29-53.
- 한상철(2008). 청소년 가출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사회문제, 12(1), 273-298.
- 허순희, 김순옥(2010). 부모의 관계특성이 청소년의 가출충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생활과학, 13, 93-111.
- 현은민(2000). 청소년 가출 : 가족적, 개인적 요인 및 대처행동의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8(2), 41-55.
- KBS(2012). 추적60분- 가출팸 그들만의 위험한 동거. 2012. 7. 11
- MBN(2012). 학교 폭력에 방치된 가출 청소년들. 2012. 3. 1.
- YTN(2012). "잘 곳 없어" 승용차 훔친 가출 청소년 검거. 2012. 3. 2.
- Allen, J. P., Bell, K. L., & Boykin, K. A.(1994). Autonomy and relatedness in adolescent-mother interaction and social functioning with peers.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on Adolescence. San Diego, CA.
- Armsden, G. C. & Greenberg, M. T.(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 Bowlby, J.(1958). "The Nature of The Child's Tie to His Mother".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9, 350-373.
- Bowlby, J.(1980). Attachment and loss: Vol. III. Loss : Sadness and depression. New York : Basic Books.
- Elliott, S. N., Malecki, C. K., & Demaray, M. K.(2001). New Directions in social skills assessment and intervention for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Exceptionality*, 9, 19-32.
- Garnezy, N.(1991). Resiliency and vulnerability to adverse developmental outcomes associated with povert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91(34), 416-430.
- Haigler, V, F., Day, H. D., & Marshall, D. D.(1995). Parental attachment and gender-role identity. *Sex Roles*, 33, 203-220.
- Kidd, S.A.(2007). Youth Homeless and Social stigma,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1-299.
- Kobak, R. R. & Sceery(1988).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Working models, affect regulation, and representation of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59, 135-146.
- Martinez, R. J.(2006). Understanding runaway

- teens, *Journal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ic Nursing*, 19(2), 77-88.
- McCormick, C. B., & Kennedy, L. H.(1994). Parent-child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self-esteem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3, 1-18.
- Mohammadiaryaa. A., Mirzaeib, S., Doustic, S., Ghasenzadeh, A., Lachinanie, F., Karinzadehf, M., Goodarzie, A.(2012)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styles and solitude feeling in runaway and non-runaway girls in Tehran.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46. 570-574
- O'Malley, J. M.(1977). Research perspective on social competence. *Merrill-Palmer Quarterly*, 23, 29-44.
- Plass, P. S., & Hotaling, G. T.(1995). The Inter Generational Transmission of Running Away : Childhood Experience of the Parents of Runawa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4(3), 335-348.
- Raja, N. S., McGee, R., & Stanton, W.(1992). Perceived attachment to parents and peer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1, 471-485.
- Shane, P.(1991). A sample of homeless and runaway youth in the New Jersey and their health status, *Journal of Health Social Policy*, 2, 73-82.
- Solomon, C. R., & Serres, F.(1999). Effects of parental verbal aggression of children's self esteem and school marks. *Child Abuse & Neglect*, 23(4), 339-351.
- Votta, E, & Farrell, S.(2009). Predictors of psychological adjustment among homeless and housed female youth. *Journal of Canadi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18, 126-132.
- Zide, M. & Cherry, A.(1992). A typology of runaway youths: An empirically based definition.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9, 155-168.

1차 원고 접수: 2012. 10. 15.
수정 원고 접수: 2012. 11. 25.
최종 게재 결정: 2012. 11. 26.

The effects of adolescents' father attachment, mother attachment, and social competence on the runaway impulse

Kum-Hae Do Mi-Seong Kim

Deagu Health Colleg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adolescents' father attachment, mother attachment, and social competence on the runaway impulse. The participants were 475 students in middle and high school. The questionnaire included measures of father attachment, mother attachment, social competence, and the runaway impulse.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For male and female adolescents alike, both the father attachment and mother attachment affected the runaway impulse. For male adolescents, alienation from both father and mother affected the runaway impulse; for female adolescents, alienation from the father and mother, along with confidence in and communication with the mother, affected the runaway impulse. 2) Male adolescents' social competence affected the runaway impulse, and interpersonal adjustment, one aspect of social competence, affected the runaway impulse. 3) For male adolescents, the father attachment had a greater effect on the runaway impulse than did any other variables, whereas for female adolescents, the mother attachment had the greater effect.

Key words : father attachment, mother attachment, social competence, runaway impulse.